

독일어 역접표현 *aber*(‘but’)의 한국어, 영어 대응양상에 관한 통계적 연구*

송경안
(전남대학교)

Song, Kyung-An. (2014). A Contrastive Study on the German Adversative Particle *aber*(‘but’) and its Correspondings in Korean and Englis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2(1), 129-15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ast the German adversative particle *aber*(‘but’) with its correspondings in Korean and English. This study has identified two common points in the three languages. Firstly, it was often the case that an adversative connective in one language has no corresponding counterparts in another language. It means that adversativity can be expressed without a explicit linguistic form. Secondly, the simple conjunctive markers *and/und* have been often found in the place of the adversative connectives *but/aber*, which means that these conjunctions can also express adversativity. Some differences were also found among the three languages. For the functions of German *aber*, 6 different expressions are used in English, whereas for English *but*, 12 different forms are used in German. It implies that the adversative expressions are more specified in German than in English. In Korean they are even more specified than in German: for German *aber*, 18 correspondings are found in Korean.

주제어(Key Words): 역접(adversative), 연접(conjunctive), 대비분석(contrastive study), 태도표지(attitude marker), 화자태도(speaker attitude), 독일어 첨사(German particle)

1. 머리말

언어와 문화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Humboldt, 1836;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08-361-A00006).

Sapir, 1921/1961; Helbig, 1986). 모든 언어표현이 문화와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언어사회의 문화에 따라 특정한 표현이나 표현방법이 발달되어 있을 수 있다.¹⁾ 예를 들면 독일어 문법에서는 양상첨사(*Modalpartikel*)나 어조첨사(*Abtönungspartikel*)라는 용어가 쓰이는 데²⁾ 한국어나 영어문법에는 이러한 용어가 없다. 이는 독일어에 양상표현과 어조표현이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며 결국 독일사회의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여 독일어의 대표적인 역접표현 *aber*(‘*but*’)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의 대응양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역접(*adversative*)이란 진술내용에 대한 화자의 적극적인 입장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해 보면 세 언어의 차이, 더 나아가 세 언어사회의 문화적 특징 일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독어학 연구자로서 필자가 대조분석의 대상으로 독일어와 한국어 이외에 영어를 포함시킨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영어가 갖는 위상 때문이다. 즉 영어는 제1외국어로서 제2외국어인 독일어의 학습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밖에 영어는 오늘날 세계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대조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독일어 *aber*와 한국어, 영어에서의 대응표현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할 것 인바 제2장에서는 분석방법을 기술하고 이어 제3장에서 통계분석 및 해석을 할 것이다.

본 논문 관련 연구로는 우선 독일어 첨사(*Partikel*) 연구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Weydt(ed.)(1979)를 들 수 있다. 이 책에 역접에 관한 논문으로 Asbach- Schnitker(1979), Stolt(1979), Koerfer(1979) 등이 있으며 이들은 독일어 개별 첨사들의 용법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와 비슷한 단행본으로 Abraham(ed.)(1991)이 있다. 이 책의 제목은 ‘*Discourse Particles*’이라고 붙여 있지만 부제를 보면 ‘독일어 첨사들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통사적 및 화용론적 연구’라고 되어 있으며 형식언어학적 분석들이 눈에 띈다. 이들과 주제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독일어 이외의 언어현상을 다룬 연구로 Andersen & Fretheim(2000)이 있다.

관련 대조연구로는 일찍이 Schubiger(1965)가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 이는 독일어 양상첨사의 의미가 영어에서 억양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근년 들어 특히 첨사 및 담화표지(*discourse marker*)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대조연구로는 Dirk(2004), Aijmer & Simon-Vandenberg(2006) 등이 있다. Jung(2011)은 영어 담화표지 *but*, *actually*, *well*의 모국어 화자와 외국어 학습자의 사용을 대조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로 신운섭(1988), 광병휴(1996), 박상욱(2001) 등이 독일어 첨사에 관해 연구하였고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박육현(1992)가 일찍이 *aber*의 양상적 기능과 분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Lee(2009)는 영어의 *but*를 중심으로 역접 접속표현의 대화함축에 대해 연구하였고 노은주(2009) 역시 한국어를 중심으로 역접접속 표현의 함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역접표현과 관련해서 첨사 *doch*(‘*but, however, yet*’)의 용법 및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는 광

1) Ahn(2012)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사과할 때 많은 설명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2) Admoni(1970), Flämig(1991), Sommerfeldt & Starke(1992)는 이들은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고 있다.

병휴(1998), 김홍자(2000), 김희자(2002) 등이 있으나 본 논문이 목표로 하는 독일어, 한국어, 영어의 역접 표현에 대한 통계적 대조연구는 아직 논의 되지 않는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진행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분석대상 텍스트의 선정: 분석대상 텍스트로 성경의 마태복음서를 선택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텍스트에서 세 언어의 역접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대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언어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바 본 연구는 가능한 한 현대어 번역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분석대상으로 삼은 세 언어의 성경은 다음과 같다.

독일어: Die Neue evangelistische Übersetzung(NeÜ, 2010)³⁾

한국어: 새번역 성경(2001년)⁴⁾

영 어: New International Version(NIV, 2011)⁵⁾

- 2) 온라인 성경텍스트 선정: 세 언어의 성경 텍스트를 오프라인으로 분석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본 연구는 온라인 성경 텍스트를 이용하였으며 그 출처는 다음과 같다.

독일어: <http://bibel-online.net>

한국어: <http://www.bskorea.or.kr>

영 어: <http://www.bible4u.pe.kr>

3) NeÜ는 Karl-Heinz Vanheiden 보완작업을 한 독일 개신교 성경이다. 2010년 5월에 전체 성경이 딜렌부르크 기독교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독일어판 위키피디아 참조: http://de.wikipedia.org/wiki/Neue_evangelistische_%C3%9Cbersetzung).

4) 표준새번역(1993년)의 개정판이다. 표준새번역은 개신교 대한성서공회에서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이다(<http://www.bskorea.or.kr> 및 <http://ko.wikipedia.org> 참조)

5)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is a completely original translation of the Bible developed by more than one hundred scholars working from the best available Hebrew, Aramaic, and Greek texts. In 1968 the New York Bible Society undertook the financial sponsorship of the project. It is updated in 1978, 1984 and 2011 (<http://www.biblegate-way.com/versions/New-International-Version-NIV-Bible>).

- 3) 온라인 텍스트의 ‘흔글’ 프로그램 전환: 온라인상에서 텍스트의 통계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계처리가 가능한 ‘흔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독일어 마태복음서는 48쪽에 총 2,105개 문장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텍스트는 총 73쪽에 달했다. 영어 텍스트는 52쪽에 총 1,840개 문장으로 집계되었다.⁶⁾
- 4) 문장 집계방식은 ‘흔글’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찾아 바꾸기’ (CTRL+ Q+A) 기능을 이용하였다.⁷⁾
 - (1) ‘찾아 바꾸기’ 기능으로 마침표, 물음표, 감탄부호의 수를 센다.
 - (2) 감탄부호 앞에 호칭표현만 오는 경우 문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콜론과 세미콜론도 문장으로 연결되므로 그 수를 세어 총계에 합산하되 그 뒤에 단어 하나만 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쉼표와 따옴표가 결합하여 문장이 연결되는 경우의 수를 세었다. 따옴표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모두 포함한다.
 - (5) 한국어 성경 텍스트에는 위와 같은 문장부호가 나타나지 않아 문장의 수를 집계할 수 없었다.
- 5) 독일어 *aber*, 영어 *but* 표현의 출현빈도의 집계도 ‘흔글’ 프로그램의 ‘찾아 바꾸기’ 기능을 이용하였다. 이때 ‘대소문자 구별’과 ‘온전한 낱말’을 선택사항으로 지정하였다. 독일어의 *aber*는 순수 역접 기능과 어조기능을 구분하였다. 한국어의 경우 역접표현이 다양해서 이러한 방식의 집계가 어려웠다.⁸⁾
- 6) 한국어, 영어의 대응표현 집계: 독일어의 대표적인 역접표현 *aber*가 나타나는 위치를 조사하고 이것이 다른 언어 텍스트의 대응구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분석한다.⁹⁾ 이때 대응표현이 없는 경우도 함께 집계한다.

6) 세 언어 마태복음서의 면수가 다른 것은 편집상의 차이 때문이다. 즉 온라인상에서 복사해서 그대로 ‘흔글’ 프로그램에 붙이는 상태에서 면수를 계산한 것이다.

7) 본 대조분석에서 문장의 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역접표현의 출현빈도와 관련해서 참고사항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8) 본 연구의 우선적인 목표는 한국어와 영어에 나타난 독일어 *aber*의 대응표현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다양한 역접표현에 대한 통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 놓는다.

9) 성경 텍스트는 장(chapter)과 절(verse)이 일일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들 사이의 대응구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대조분석

본 장에서는 독일어 *aber*의 한국어, 영어 대응표현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어와 영어의 역접표현이 독일어에서 어떻게 대응되는가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아니며 이는 차후 과제도 남긴다. 독일어 *aber*가 한국어에서 대응되는 양상을 통계적으로 보면 [표1]과 같다.

독일어 접속표현 *aber*는 모두 117회 나타나는데 한국어에서는 이 가운데 24개 항목이 대응표현이 없다. 나머지 93개 항목 가운데 39개 항목은 한국어의 대표적인 대립 접속어 ‘그러나’로 나타나고, 대립 접속어미 ‘-으나’가 13회, ‘-지만’ 10회, ‘-어/아도’가 3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독일어 117회의 *aber*에 대해 한국어의 대립 접속표현이 65회 대응된 셈이다. 전체에 대한 비율로는 55.5%에 해당한다. 대응표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는 69.8%를 차지한다.

[표1] 독일어 *aber*의 한국어 대응표현 통계

| 번호 | 대응표현 | 회수 (개별) | 회수 (통합) | 비율 (%) | 번호 | 대응표현 | 회수 (개별) | 비율 (%) |
|----|------|------------|------------|-----------|----|--------|------------|-----------|
| 1 | NONE | 24 | 24 | 20.5 | 10 | -면서 | 03 | 2.5 |
| 2 | 그러나 | 39 | 65 | 55.5 | 11 | -르 것이요 | 03 | 2.5 |
| 3 | -으나 | 13 | | | 12 | -르 지라도 | 02 | 1.7 |
| 4 | -지만 | 10 | | | 13 | -르 것이며 | 01 | 0.8 |
| 5 | -어도 | 03 | | | 14 | 그랬더니 | 01 | 0.8 |
| 6 | -고 | 06 | 08 | 6.8 | 15 | -자니 | 01 | 0.8 |
| 7 | 그리고 | 02 | | | 16 | -고서는 | 01 | 0.8 |
| 8 | -는데 | 04 | 06 | 5.1 | 17 | -고도 | 01 | 0.8 |
| 9 | 그런데 | 02 | | | 18 | -지 말고 | 01 | 0.8 |
| 계 | | | | | | | 117회 | 100% |

위 [표1]에서 우리는 한국어에서 이밖에도 수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접속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독일어 *aber*에 대응되는 표현이 한국어에는 무대응 포함해서 18가지이다. 이와 같은 통계는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어의 접속표현 *aber*에 대해 한국어는 매우 다양한 표현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마태복음이라는 텍스트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양적인 차원을 넘어 질적인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대립의 의미를 한국에서는 매우 섬세하게 구분해서 표현한다는 뜻이 된다.

독일어 *aber*에 대해 한국에서 어느 표현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24회에 달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대립을 나타내는 명시적인 접속표현 없이도 대립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은 독일어 텍스트에서는 대립접속어 *aber*가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대립 접속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립관계를 표현하는 예이다.

(1) (독) Ihr seid das Salz der Erde. Wenn das Salz **aber** seinen Geschmack verliert, womit soll man es wieder salzig machen?

(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마태 5:13)

둘째, 한국어 성경번역이 약간 자연스럽지 못한 면도 있다. 즉 영어나 독일어 성경에 비해 한국어 성경은 내용전달에 더 많이 신경을 쓴 탓인지 언어 형식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그 결과 접속표현을 쓰면 더 자연스럽겠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이 종종 눈에 띈다. (2)가 그 한 예이다. 즉 (2)의 독일어 텍스트에서는 접속표현 *aber*가 사용되어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러운데 반해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접속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2) (독) (...) kam eine Dienerin auf ihn zu und sagte: "Du warst doch auch mit dem Jesus aus Galiläa zusammen!" **Aber** Petrus stritt es vor allen ab.

(한) (...)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마태 26:69-70)

한편 한 언어에서 대립접속어로 표현되는 것이 다른 언어에서 무대응으로 나타나는 일은 독일어/한국어 텍스트 비교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다. 독일어 *aber*가 영어 텍스트에서 무대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총 출현회수 117회 가운데 24회), 영어의 대립 접속표현 *but*이 독일어 텍스트에서 무대응으로 나타나는 일도 많다(총 출현회수 188회 가운데 30회). 영어와 독일어 성경 텍스트는 한국어 텍스트에 비해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통계는 결국 문맥에 따라 대립 접속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독일어 *aber*에 대해 한국어에서는 '그러나, -아도, -지만, -으나' 등 4 가지 대립 접속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접속부사와 접속어미로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 범주가 대립을 표현하는 것은 같지만 맥락적 혹은 화용적 의미는 분명하게 다를 것으로 짐작된다. 예를 들면 (3)의 환경에서는 접속어미들보다 접속부사 '그러나'가 더 자연스럽다.¹⁰⁾

- (3)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마태 2:21-22)

‘-아도, -지만, -으나’는 한국어의 대표적인 대립관계 접속어미이다(윤평현, 2005: 제3장 참조). 이 세 가지 어미 역시 대립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맥락적 의미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윤평현(2005, 85f)는 이들 세 어미들의 용법상의 차이를 기술하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면 예문 (4)에서는 어미 ‘-지만’이 자연스러우며 다른 두 가지 어미는 부자연스럽다(같은 책, 88). 접속부사 ‘그러나’도 물론 이 환경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 (4) 죄송**하지만**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영어나 독일어 등 유럽 언어에 비해 한국어에 접속어미가 섬세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들의 형식과 기능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은 국어학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서태룡, 1990 참조). ‘-아도, -지만, -으나’의 기능적 차이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접속어미가 섬세하게 발달해 있는 한국어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표1]의 어미 ‘-ㄴ 지라도, -고도’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선 두 언어의 해당 텍스트를 보면 (5)-(6)과 같다.

- (5) (독) Was hat ein Mensch davon, wenn er die ganze Welt gewinnt, dabei **aber** das Leben einbüßt?

(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마태 16:26)

- (6) (독) Himmel und Erde werden vergehen, **aber** meine Worte vergehen nie.

(한)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태 24:35)

‘-ㄴ 지라도’는 한국어의 대표적인 양보관계 접속어미이며, ‘-고도’ 역시 같은 성격의 접속어미로 볼 수 있다(윤평현, 2005: 154f; 국립국어원, 2005b: 39). 이들의 공통점은 끝에 ‘-도’가 붙었다는 것이다. 문법적 지위로 보면 이 ‘-도’를 조사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형태와 의미에서는 보조사 ‘-도’와 동일한 것은 분명하다(윤평현, 2005: 154).¹¹⁾ 그렇다면 ‘-ㄴ 지라도, -고도’는 ‘-ㄴ 지라, -고’에 ‘-도’가 붙어 형성된 어미인데, 한국어에서 ‘-ㄴ 지라’는 일종의

10) 이러한 차이에 대해 자세히 논구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차후 과제로 남겨 놓겠다.

11) 국립국어원(2005b, 39)은 ‘-고도’의 ‘-도’를 조사라고 부르고 있다.

종결어미이고, ‘-고’는 대표적인 연결(conjunctive) 접속어미이다. 종결어미와 연결 접속어미에 보조사 ‘-도’를 붙여 양보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할 만하다. 위에서 말한 대립관계 접속어미 ‘-어도’도 형식면에서는 이들과 같은 것이며 기능면에서 원래 양보관계 의미가 대립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이와 관련해서 독일어의 양보문에서도 흔히 *auch*(‘also’)가 나타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³⁾

한편 독일어에서는 분명하게 역접 등위접속사 *aber*로 표현되는 의미가 한국어에서는 양보관계 접속어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는 두 언어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영어와 독일어는 핵어 전치형(head-initial) 언어로서 접속표현이 관련 문장의 머리에 위치하며 한국어는 핵어 후치형(head-final) 언어로서 접속표현이 관련 문장의 끝에 온다(Song, 2001: 제2장; Song, 2011: 제13장; Haspelmath, 2004). 이 두 가지 유형의 접속구문 구조를 정리하면 (7)-(8)과 같다.

(7) 독일어/영어 접속구문의 구조

- 1) [CONN + 종속절] ... 주절
- 2) 주절 ... [CONN + 종속절]
- 3) 등위절 ... [CONN + 등위절]¹⁴⁾

(8) 한국어 접속구문의 구조

- 1) [종속절 + CONN] ... 주절
- 2) [등위절 + CONN] ... 등위절

위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어, 영어는 등위접속구문과 종속접속구문이 분명하게 구조적으로 구분되는 언어이다. 그러나 한국어는 상황이 다르다. 즉 유럽 언어연구의 전통에 따라 한국어 문법에서도 등위접속과 종속접속을 구분하기는 하지만(남기심·고영근, 1985: 제13장; 송재목, 2001: 309f; 홍재성, 2001: 231), 한국어에서 이들은 형식적으로 차이가 없고 기능면에서도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다. 이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는 국립국어원(2005a, 111)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본다.

(9)-(10)의 영어와 한국어 예문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9a,b)는 각각 영

12) 윤평현(2005, 140)은 ‘-아도’를 대표적인 양보관계 접속어미로도 분류하고 있다.

13) “Wenn es *auch* kalt ist, so zieht er doch keinen Matel an.”(그는 추워도 외투를 입지 않는다.)(Helbig & Buscha, 1996: 473)

14) 독일어/영어의 등위접속사는 앞뒤 두 등위절과 등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통사적으로 후행절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접접속사 *aber*, *but* 구문에서 잘 들어나며 연결접속사 *und*, *and* 구문에서도 휴지를 두거나 콤마를 찍을 때는 접속사를 후행절에 붙이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통사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Haspelmath, 2004: 6f).

어의 대표적인 등위접속 구문과 종속접속 구문이며 구조면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이들을 번역해 놓은 한국어의 문장 (10a,b)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없다.

- (9) a. John plays the guitar **and** his sister plays the piano.
 (Quirk, et al., 1985: 921)
 b. **If** he should call, tell him I am not at home. (Zandvoort, 1966: 218).
- (10) a. 철수는 기타를 치-고, 누나는 피아노를 친다.
 b. 그 사람이 전화하-면, 나 집에 없다고 해라.

영어의 종속접속사는 앞문장과 연결되고 등위접속사는 뒤의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데¹⁵⁾ 한국어는 접속어미는 모두 앞의 문장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로 영어에서는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2 가지 접속구문이 한국어에서는 형식과 기능면에서 모두 구분이 애매해진다. 특히 대립관계 접속구문과 양보관계 접속구문 사이에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면 (11)-(12)에서 영어 문장은 등위접속 구문과 종속접속 구문이 잘 구별되는데,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렵고 굳이 구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 (11) a. Though I am poor, I am honest. (Zandvoort, 1966: 219)
 b. I am poor, but I am honest.
 c. 나는 가난하지만 정직하다.
- (12) a. He tried hard, but he failed. (Quirk, et al., 1985: 921)
 b. Although He tried hard, he failed.
 c. 그 사람은 많이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양보관계 접속어미와 대립관계 접속어미 사이에 의미기능의 불분명한 경계로 인하여 혼란을 유발하기 쉽다. 대립관계 접속어미들도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고 양보관계 접속어미들도 대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두 접속어미를 구별하지 않고 함께 취급하기도 한다(운평현, 2005: 139). 독일어의 *aber*나 영어의 *but* 과 관련해서 보면 이들 언어에서는 이 접속어들이 후행절에 나타나고 따라서 대립의 의미가 후행절에서 표현되는데, 한국어에서는 이것이 선행절의 어미로 처리되기 때문에 구조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15) (9)의 *and*도 뒷문장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등위접속사 *but*에서 더 분명하게 들어난다.

한국어는 이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조/대립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표1]에서 ‘그리고, -고, -고, -르 것이며, -지 말고’는 ‘-고/-며’로 끝났다는 점에서 연결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2005a, 116)은 ‘-고/-며’를 나열관계 접속어미로 분류한다. 대립이나 양보 등의 특별한 의미기능 없이 단순히 사건을 나열한다는 뜻이며 유럽 문법의 개념으로 보면 이는 연접 (conjunction)에 해당할 것이다. 연접은 이접, 역접, 양보 등과는 다른 기능이다. 독일어 *aber*는 대표적인 역접 등위접속사인데 이것이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그리고, -고, -르 것이며, -지 말고’와 같이 연결구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하나의 접속어미가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남영신, 1992). 나열 혹은 연접 접속어미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대립되는 내용의 문장을 나열하면 자연스럽게 대립의 의미가 전달될 것이다. 독일어의 역접구문이 한국어의 연접 구문으로 표현되는 마태복음의 예를 보면 (13)과 같다. [표1]의 연접 접속어미 ‘-르 것이며’도 대조·대립을 표현하는 경우이다.

(13) a. Den Weizen wird er in die Scheune bringen, die Spreu **aber** wird er mit einem Feuer verbrennen.

b.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마태 3:12)

[표1]에 따르면 ‘-르 것이요’ 구문이 3번 나타난다. 국립국어원(2005b, 590)은 어미 ‘-요’가 나열 혹은 대조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이 역시 나열의 기능에서 문맥에 따라 대조의 기능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르 것이요’는 같은 연접 접속어미 ‘-르 것이며’로 대체할 수 있지만 어감이 정확히 같지는 않다. 이는 두 가지 구문의 기능이 정확히 같지는 않다는 뜻이며, 한국어에 대조표현이 그만큼 세분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14)-(15)는 독일어 역접 접속어 *aber* 구문이 한국어에서 이 두 가지 구문으로 표현되는 예이다.

(14) a. Wer sein Leben festhalten will, wird es verlieren. Wer sein Leben **aber** meinetwegen verliert, der wird es finden.

b.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마태 10:39)

(15) a. Wer hat, dem wird gegeben, und er wird im Überfluss haben, wer **aber** nicht hat, dem wird auch das genommen, was er hat.

b.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마태 13:12)

'-고/-며'가 어떤 문장구조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그 기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표1]에서 '-지 말고'가 그 예이다. 즉 '말다'는 부정 명령에 쓰이는 보조동사인데이것이 연접접속어미 '-고'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대조를 나타내게 된다((16) 참조).

- (16) a. *Habt keine Angst vor denen, die nur den Leib töten, (...). Fürchtet **aber** den, der Seele und Leib dem Verderben in der Hölle preisgeben kann.*
 b.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마태 10:28)

[표1]의 '-면서'를 국립국어원(2005a, 116)에서는 동시관계 표현 어미로 보고 윤평현(2005, 14, 197)에서는 나열관계와 시간관계 표현 등 2 가지로 분류하였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나열의 의미가 될 수 있고 시간의 개념이 희석되면 단순 나열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단순 나열이 전후 문장의 의미에 따라 대조의 의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17b)가 전형적인 예이다.

- (17) a. *Was kümmerst du dich um den Splitter im Auge deines Bruders, bemerkst **aber** den Balken in deinem eigenen Auge nicht?*
 b.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 7:3)

[표1]의 '-은데/-는데, 그런데'는 상황이나 배경을 나타내고 대조·대립을 나타내기도 한다.16) 이 역시 상황이나 배경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대조·대립의 표현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b)는 '-는데'가 대조를 표현하는 예이다.

- (18) a. *Wie kommt es, dass wir und die Pharisäer so viel fasten, deine Jünger **aber** nicht?*
 b.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 9:14)

[표1]에는 또 '그랬더니' 구문이 있다. 연결어미 '-더니'는 독립된 어미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로 앞의 내용과 대조적인 사실이 뒤에 온다(국립국어원, 2005b: 352). 이는 '-더-'와 '-(으)니'가 결합한 것으로 회상을 나타내는 '-더-' 때문에 과거시제와 연결된다. '-(으)니'는 '-으니

16) 윤평현(2005, 239f)은 상황관계 표현으로 보았고 국립국어원(2005a, 116)은 배경관계와 대조·대립 관계 표현으로 보았다.

까에서 온 것으로 그 기본기능은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것인데, 문맥에 따라 이 기본의미가 탈색되고 (19)과 같이 단순히 사건의 결과만을 나타낼 수 있다.¹⁷⁾ 여기에 ‘-더’가 결합되면서 대조적인 기능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20) 참조). ‘-더니’는 이제 더 이상 ‘-까’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이는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기능과 멀어졌다는 뜻이다.

- (19) a. 동네 서점에 가니 휴일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
 b. 재미있게 놀다 보니 벌써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국립국어원, 2005b: 616)
- (20) a. Da schickte der Gutsherr andere Sklaven, mehr als beim ersten Mal. **Aber** mit denen machten sie es genauso.
 b.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태 21:36)

[표1]의 ‘-자니’는 선행 문장과의 대조를 나타낸다. 해당 독일어, 한국어 문장은 (21)과 같다. ‘-자니’는 ‘-자 하니’에서 온 말이며 그 원래 의미는 ‘-려고 하니’와 같다(같은 책, 849). 여기에서 ‘-니’의 기능도 역시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기본기능에서 출발했을 것인데 (19)에서와 같이 문맥에 따라 이 기본의미가 탈색되어 다른 의미로 발전했을 것이다((22) 참조). 즉 (21)에서 ‘-니’는 이유·원인의 의미기능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도를 나타내는 ‘-려 하다’와 결합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 (21) a. Wenn wir **aber** sagen: ‘Von Menschen’, dann müssen wir uns vor dem Volk fürchten, denn sie glauben alle, dass Johannes ein Prophet war.
 b.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우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마태 21:26)

- (22) 버리려 하니 아깝고 먹으려 하니 먹을 것이 없다. (국립국어원, 2005b: 849)

(21)의 ‘하자니’도 비슷한 상황처럼 보인다. 이는 ‘하자 하니’에서 온 말이며 역시 의도를 나타내는 ‘-자 하다’와 ‘-니’가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자니’의 의미는 ‘하려(고) 하니’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21b)에서 ‘하자니’의 의미는 정확히 이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자니’ 대신에 ‘하려고 하니’를 넣을 경우 그 맥락적 의미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자니’는 대조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하려고 하니’는 대조 중립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필자는 현대 한국어에서 ‘-자니’를 별도의 어미로 간주하는 것

17) ‘탈색(bleaching)’에 관한 자세한 것은 이성하(1998, 36f) 참조.

이 적절하다고 본다. 국립국어원은 위의 '-자니'를 별도의 어미로 간주하지 않으며 '-자 하니' 구문을 어미 '-자'의 예문으로 처리하고 있다(같은 책, 861f 참조). 남영신(1992, 626)도 '-자니'를 별도의 어미로 분류하지 않고, 역시 '-자 하니' 구문만 어미 '-자'의 예문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 많은 어미들이 형태적 축약과 의미적 탈색 그리고 기능적 변화를 거치고 있는바(Song, 2009 참조) '-자니'도 그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니'가 과거시제와 연관되어 있다면 '-자니'는 미래시제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의 '-고서는'은 '-고서'의 강조형이고(국립국어원, 2005b: 44f), '-고서'는 한국어의 대표적인 연결어미 '-고'에 '-서'가 결합된 것이다. '-서'의 기본의미는 시간적 선후 관계이며 '-고서'의 기본의미도 따라서 시간적 선후 관계이다(윤평현, 2005: 197f).¹⁸⁾ 이 의미는 탈색 과정을 거쳐 다양한 기능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며¹⁹⁾ 그 가운데 하나가 대립관계 표현이다. '-면서'는 동시관계 표현이 대조기능으로 발전한 경우이고 '-고서'는 선후관계 표현이 대조기능으로 발전한 경우이다. 마태복음 성경 텍스트 가운데서 독일어 *aber*가 한국어 '-고서는'으로 대응되는 예는 (23)과 같다. 한편 앞에서 우리는 '-고서는'이 '-고서'의 강조형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들의 의미가 정확히 갖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다시 한국어에서 대조의 의미가 그만큼 정교하게 구별된다는 뜻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23b)의 문맥에서는 '-고서'보다 '-고서는'이 더 자연스럽게 대조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 (23) a. 'Ja, Vater!', antwortete dieser, ging **aber** nicht.
 b.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마태 21:30)

이상에서 우리는 독일어와 한국어의 역접표현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영어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독일어 *aber*가 영어 텍스트에서 대응되는 양상을 통계적으로 보면 [표2]와 같다.

[표2] 독일어 *aber*의 영어 대응표현 통계

| 번호 | 대응표현 | 회수(개별) | 비율(%) |
|----|---------|--------|-------|
| 1 | NONE | 23 | 19.7 |
| 2 | but | 78 | 66.6 |
| 3 | and | 11 | 9.4 |
| 4 | yet | 3 | 2.5 |
| 5 | rather | 1 | 0.8 |
| 6 | instead | 1 | 0.8 |
| 계 | | 117 | 100% |

18) 남영신(1992, 598)은 '-고서'의 의미를 시간적 선후 관계로만 기술하고 있다.

19) 국립국어원(2005b, 44f)은 '-고서'의 의미를 5가지로 분류한다.

독일어 역접 접속표현 *aber*는 모두 117회 나타나는데 영어에서는 이 가운데 23개 항목이 대응표현이 없다. 나머지 94개 항목 가운데 78개 항목은 영어의 대표적인 역접접속사 *but*으로 나타나고, 연접접속사 *and*가 11회 대응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밖에 *yet*이 3회, *rather*와 *instead*가 각각 1회씩 대응되어 나타난다.

독일어 *aber*에 대한 대응양상에서 한국어와 영어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한국어에서는 대응표현이 18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영어는 대응표현이 6가지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의 대립관련 표현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또 영어에서는 역접표현 *but*이 78회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그러나’가 39회로 그 절반에 해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으나, -지만, -는데, -어도’ 등의 양보/대립 표현이 대응하고 있다. 크게 보면 독일어 *aber*에 대해 영어 대응표현은 *NONE*, *but*, *and*로 대별되는데 한국어의 대응표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독일어 *aber*에 대해 영어에서 대응표현이 없는 경우가 23회에 달하는데 이는 대립을 나타내는 접속표현 없이도 대립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한 언어에서 역접구조로 표현되는 구문이 다른 언어에서는 특별한 접속표지 없이 나타나는 일은 독일어, 영어, 한국어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는 개별언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4)는 독일어 텍스트에서는 대립접속어 *aber*가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영어 텍스트에서는 대립 접속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예이다.

(24) (독) Denn wer hat, dem wird gegeben, und er wird im Überfluss haben, wer **aber** nicht hat, dem wird auch das genommen, was er hat.

(영)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마태 13:12)

독일어 *aber*에 대해 영어에서 특별한 대응표현이 없는 경우 영어는 현재분사 구문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분사 구문이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25 참조). (25)의 독일어 문장에서는 분명하게 역접 접속사 *aber*가 쓰였는데 영어 문장에서는 접속사 없이 현재분사가 쓰였다. 이때 현재분사가 꼭 대립을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대립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어 *aber* 구문이 영어에서 현재분사 구문으로 나타나는 예는 마태복음 텍스트에서 두 군데 더 볼 수 있다(마태 3:12, 14:13 참조).

- (25) (독) und er heilte sie alle. **Aber** er verbot ihnen nachdrücklich, in der Öffentlichkeit von ihm zu reden.
 (영) and he healed all their sick, **warning** them not to tell who he was.
 (마태 12:15-16)

독일어의 역접 접속표현 *aber*가 영어에서 연결 접속표현 *and*로 대응되는 경우는 11회로써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독일어의 *aber*가 연결구조로 대응되는 일은 한국어에서도 볼 수 있었으며, 반대로 한국어나 영어의 역접구조가 독일어에서 연결구조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관찰된다.²⁰⁾ 이는 연결 접속표현을 가지고도 역접 혹은 대립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Huddleston & Pullum(2002, 1301)에 따르면 *and*가 (26)과 같이 양보(concession)를 나타내면서 *nevertheless, despite*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26) a. You can eat as much of this as you like **and** not put on weight.
 b. They expect us to get up at 3:00 a.m. **and** look bright and cheerful.

Quirk, et al.(1985, 931)도 (27)의 연결 접속구문에서 뒤따르는 절이 대립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and*를 *but*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밖에 "The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1984)"의 *and* 항목에도 이 접속어가 역접(adversative)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어의 연결접속어가 대립이나 역접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한국어와 독일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보편적인 현상일 것으로 짐작된다.

- (27) a. Robert is secretive **and** (in contrast) David is candid.
 b. She tried hard **and** (yet) she failed.

독일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조표현(*Abtönungspartikel*)이 잘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Helbig, 1990; Helbig & Helbig, 1990; Weydt, 1979 참조). *Aber* 역시 역접접속사 이외에 어조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역접접속사와 어조표현 사이의 경계가 애매하기는 하지 만 필자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마태복음에서 *aber*를 어조표현으로 분류한 것은 총 117 곳 가운데 10 곳이다((28) 참조).

- (28) 독일어 *aber*가 어조표현으로 나타나는 곳:
 05:22/11:09/13:34/19:07/21:16/21:29/22:43/24:15/27:23/27:50

20) 본 연구의 분석대상 마태복음 영어 텍스트에서 역접 접속표현 *but*은 188회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11 군데가 독일어에서 연결 접속표현 *und*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경우 *aber*가 영어 문장에서는 거의 대응표현이 없다는 것이다. (29)가 그 한 가지 예이다.

(29) (독) Wer **aber** zu seinem Bruder ‘Schwachkopf’ sagt, der gehört vor den Hohen Rat.

(영) Anyone who says to his brother, ‘Raca,’ is answerable to the Sanhedrin.(마태 5:22)

어조표현의 *aber* 10 군데 가운데 9 군데가 영어에서는 무대응으로 나타나며 한 군데는 *and*가 나타난다((30) 참조).²¹⁾ 이때 물론 *and*를 어조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0) (독) Jesus **aber** stieß einen lauten Schrei aus und starb.

(영) **And** when Jesus had cried out again in a loud voice, he gave up his spirit. (마태 27:50)

독일어 어조표현 *aber*와 한국어 대응표현의 문제는 해석이 조금 복잡하다. 두 언어의 텍스트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독일어의 *aber*가 한국에서도 모두 대응표현 없이 나타난다. (31)이 그 한 가지 예이다.

(31) (독) Schon wer auf seinen Bruder zornig ist, gehört vor Gericht. Wer **aber** zu seinem Bruder ‘Schwachkopf’ sagt, der gehört vor den Hohen Rat.

(한)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열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다. (마태 5:2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독일어의 역접표현 *aber*가 다양하게 대응되면서 섬세한 의미적 차이를 표현한다. 어조표현도 미세한 의미적, 화용론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표현수단이 있을 법한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 텍스트에서는 어조표현 *aber*의 대응표현이 한국어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것이 한국어 성경의 번역 스타일에 기인한다고 본다. 앞서 말했듯이 영어나 독일어 성경에 비해 한국어 성경은 언어 형식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그 결과 적절한 접속표현이나 어조표현이 빠진 느낌이 드는 일이 많다.

21) 한 군데서는 세미콜론이 나타난다. 문어에서 세미콜론은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갖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무시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31)의 독일어 문장에는 *aber* 이외에 문두의 *schon* (‘already’)도 어조표현으로 쓰이고 있는데 한국어 번역문을 (32)과 같이 바꾸면 의미적으로 혹은 화용론적으로 독일어 문장에 더 가까울 것이다. (32)에서 두 번째 문장은 (31)과 형식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31)과 (32)에 쓰인 조사 ‘-은’의 화용론적 기능이 다르다고 본다. (31)에서 ‘-은’은 특별한 어조적 의미 없이 단순한 주어표지로 쓰인 반면²²⁾ (32)에서는 앞 문장의 ‘-만 ~ -도’와 어우러져 어조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어는 독일어의 어조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번역 스타일의 차이로 적절한 어조표현이 빠져 있다고 하겠다.

(32)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어도** 심판을 받을 것이며, 형제나 자매에게 열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의회에 불러갈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독일어 *aber*에 대한 영어의 대응표현들을 살펴보았는데 영어의 *but*에 대한 독일어의 대응양상을 보면 두 언어 간의 차이가 조금 더 잘 드러난다([표3] 참조).²³⁾ [표2]와 [표3]을 비교할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aber*와 *but*의 출현빈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똑 같은 마태복은 텍스트에서 독일어 *aber*는 117회 나타난 반면 영어의 *but*은 188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영어에 비해(23회) 독일어의 무대응(‘NONE’)이 많다는(41회) 것이다. 이는 영어가 독일어에 비해 명시적인 역접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다. 둘째, 독일어에서 *doch*(‘but, however, yet’)의 사용이다. 영어는 역접표현을 거의 *but*에 의존하고 있는데(66.6%), 독일어에서는 *aber*(41.5%)이외에 *doch*가 16.5%를 차지한다.²⁴⁾ 독일어에서 *aber*와 *doch*의 기능이 정확히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독일어는 역접표현이 그만큼 세분되어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셋째, 독일어에서 *sondern*(‘but’)의 사용이다. 이는 ‘nicht ~ sondern’ 구문에 나타난 표현이며 영어의 ‘not ~ but’ 구문에서 *but*의 역할을 독일어에서는 *sondern*이 담당하면서 역접의 기능이 더 분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현대 국어 표준문법에서는 ‘-은/-는’을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로 분류하고 있는데(남기심·고영근, 1985: 100) 필자는 이들이 격조사의 기능과 보조사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The sun rises in the east."라는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가 되는데 이때 ‘-은’을 단순한 주제표지라기보다는 주어표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23) 앞서 언급한 대로 영어의 *but*에 대한 독일어의 대응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는 아니지만 두 언어의 차이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 간단히 통계를 제시한다.

24) 무대응 표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영어의 *but*은 83%, 독일어의 *aber*는 53%, *doch*는 21%를 차지한다.

[표3]: 영어 *but*에 대한 독일어 대응표현 통계

| 번호 | 대응표현 | 회수 (개별) | 비율 (%) |
|----|-------------------------|------------|-----------|
| 1 | NONE | 41 | 21.8 |
| 2 | aber 'but' | 78 | 41.5 |
| 3 | doch 'but, yet' | 31 | 16.5 |
| 4 | sondern 'but' | 19 | 10.1 |
| 5 | und 'and' | 11 | 5.9 |
| 6 | jedoch 'however' | 2 | 1.0 |
| 7 | nun 'now' | 1 | 0.5 |
| 8 | obwohl 'although' | 1 | 0.5 |
| 9 | stattdessen 'instead' | 1 | 0.5 |
| 10 | trotzdem 'nevertheless' | 1 | 0.5 |
| 11 | nur 'only' | 1 | 0.5 |
| 12 | dann sogar 'even then' | 1 | 0.5 |
| | | 188 | 100 |

요약하자면 영어는 독일어보다 명시적인 역접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영어에서 *but*의 기능이 독일어에서는 *aber*, *doch*, *sondern*으로 분산되어 독일어에 역접표현이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표2]와 [표3]을 비교하면 우리는 이밖에 두 가지 결론을 더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영어보다 독일어에 기타 대응표현이 훨씬 많이 발달해 있다. 둘째, 역접의 의미를 연결 접속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두 언어에서 모두 11회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비율을 감안하면 영어에서 훨씬 많이 쓰인다고 하겠다.²⁵⁾

4.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어 역접표현 *aber*의 한국어, 영어 대응표현을 성경의 마태복음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어에는 독일어의 *aber*에 대한 대응표현이 18 가지로 나타났으며 그 형식도 '그러나, 그런데, 그랬더니'와 같은 접속부사에서부터 '-으나, -지만, -어도'와 같은 어미 그리고 '-ㄴ 것이요' 같은 서술형식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한국어의 이 18 가지 대응표현들이 각자 조금씩 다른 의미론적, 화용론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25) *and*의 실제 비율: $11 \div (117-23) \times 100 = 11.7\%$, *und*의 실제 비율: $11 \div (188-41) \times 100 = 7.4\%$

이 언어에서 역접표현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영어의 대응표현들은 한국어와 큰 대조를 보인다. 즉 독일어의 *aber*에 대한 영어의 대응표현은 '무대응, but, and, yet, rather, instead' 등 6 가지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부분(86%)을 *but*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연접 접속사 *and*까지 제외시키면 영어의 역접표현은 거의 *but* 한 단어로 표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어는 이점에서 통계적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중간에 위치한다. 즉 영어 *but*에 대한 독일어의 대응표현은 '무대응, aber, doch, sondern, und, jedoch, nun, obwohl, stattdessen, trotzdem, nur, dann sogar' 등 12가지로써 양적으로 영어의 2배에 해당하며 한국어의 2/3에 해당한다. 독일어의 어조표현 *aber*는 영어에서 대응표현이 없는데 이는 영어에 이러한 표현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어 해당 텍스트에서도 독일어 어조표현에 대한 대응표현이 발견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이는 번역 문체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언어의 역접표현이 다른 언어에서는 대응표현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사적인 역접표지 없이도 역접의 의미가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무대응은 세 언어에서 모두 20% 정도로(독: 21.8%, 한: 20.5%, 영: 19.7%)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개별언어 특성이라기보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한 언어의 역접표현이 다른 언어에서 연접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연접 접속어도 문맥에 따라 역접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도 세 언어에서 모두 10% 안팎으로(독: 7.4%, 한: 9.6%, 영: 11.7%)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언어보편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겠다.

이로서 우리는 역접표현과 관련한 독일어, 한국어, 영어의 특징을 개략적으로나마 통계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본 연구는 독일어 *aber*에 대한 두 언어의 대응표현을 주로 분석하였으며 그 역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한국어의 역접표현이 워낙 다양해서 이에 대한 다른 언어의 대응표현들을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독일어의 경우 *aber* 못지않게 중요한 역접표현이 *doch*인데 이와 관련한 분석이 결들여졌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진한 부분들을 차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1차문헌

독일어 성경: Die Bibel: Die Neue evangelistische Übersetzung (2010). Die Christliche Verlagsgesellschaft Dillenburg.

한국어 성경: 새번역 성경 (2001). 대한성서공회.

영어 성경: The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2011). New York Bible Society.

2. 2차문헌

- 곽병후. (1996). 불변화사 'noch'의 의미론.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1*, 198- 219.
- 곽병후. (1998). 'DOCH'의 의미론: 독한 번역을 위하여. *독일어문학 7*, 5-29.
- 국립국어원. (2005a).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원. (2005b).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홍자. (2000). *doch*와 *denn*의 구어텍스트 형성에 있어서의 화자전략. *언어과학연구 18*, 121-148.
- 김희자. (2002). 독일어 양상불변화사 *doch*의 우리말 번역 가능성. *독어학 5*, 223-251.
- 남기심 · 고영근. (1985).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남영신. (1992). *우리말 분류사전 (3)*. 서울: 한강문화사.
- 노은주. (2009). 한국어의 PA/SN 구분에 관한 재고. *언어와 언어학 45*, 59-86.
- 박상욱. (2001). 독일어의 양상불변화사와 초점. *독일어문학 16*, 235-257.
- 박육현. (1992). 양태사 *aber*에 대하여. *언어와 언어교육 7*, 31-54.
- 서태룡. (1990). 활용어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국어연구어디까지 왔나*, 345-357. 서울: 동아출판사.
- 송재목. (2001). 용언과 활용 I, II. 남기심 외(공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제11-12강. 서울: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신운섭. (1988). 독일어의 불변화사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 *독어교육 6*(1), 110-138.
- 윤평현. (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서울: 박이정.
- 이성하. (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홍재성. (2001). 한국어 문장과 그 구조. 남기심 외(공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제9강. 서울: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Abraham, W. (ed.)(1991). *Discourse particles*. Amsterdam: John Benjamins.
- Admoni, W. (1970). *Der deutsche Sprachbau*. München: C. H. Beck
- Ahn, J. K. (2012). Why do Koreans explain a lot, when making an apolog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3), 1-15.
- Aijmer, K. & Simon-Vandenbergen, A.-M. (2006). *Pragmatic markers in contrast*. Amsterdam: Elsevier.
- Andersen, G. & Fretheim, T. (ed.) (2000). *Pragmatic markers and propositional attitude*. Amsterdam: John Benjamins.

- Asbach-Schnitker, B. (1979). Die adversativen Konnektoren *aber, sondern, und, but* nach negierten Sätzen. In H. Weydt (Ed.), *Die Partikeln der deutschen Sprache* (pp. 457-468). Berlin: Walter de Gruyter.
- Dirk, S. (2004). *Discourse markers across languages*. New York: Routledge.
- Flämig, W. (1991). *Grammatik des Deutschen*. Berlin: Akademie Verlag.
- Haspelmath, M. (2004). Coordinating constructions: An overview. Haspelmath, M. (ed.). *Coordinating constructions* (pp. 3-39).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Helbig, G. (1986). *Geschichte der neueren Sprachwissenschaft*. Leipzig: Bibliographisches Institut.
- Helbig, G. (1990). *Lexikon deutscher Partikeln*. Leipzig: Enzyklopädie Verlag.
- Helbig, G. & Buscha, J. (1996). *Deutsch Grammatik*. Leipzig: Langenscheidt.
- Helbig, G. & Helbig, A. (1990). *Lexikon deutscher Modalwörter*. Leipzig: Enzyklopädie Verlag.
- Huddleston, R. & Pullum, G. K.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mboldt, W. von (1836). *Über die Verschiedenheit des menschlichen Sprachbaues und ihren Einfluß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s*. Berlin: Königliche Akademie der Wissenschaft.
- Jung, J.-Y. (2011). *Discourse markers in contrast: ‘but, actually and well’ in native-nonnative English conversations between friends*. Charleston: Bibliobazaar.
- Koerfer, A. (1979). Zur konversationellen Funktion von *ja aber*. Am Beispiel universitärer Diskurse. In H. Weydt (Ed.), *Die Partikeln der deutschen Sprache* (pp. 14-29). Berlin: Walter de Gruyter.
- Lee, H.-K. (2009). Adversative conjunction and implicature. *Discourse and cognition* 16(1), 83-111.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apir, E. (1921/1961). *Die Sprache: Eine Einführung in das Wesen der Sprache*. München: Max Hueber.
- Schubiger, M. (1965). English intonation and German modal particles - A comparative study. *Phonetica*, 12, 65 - 84.
- Sommerfeldt, K.-E. & Starke, G. (1992). *Einführung in die Grammatik der deutschen*

- Gegenwartssprache*. Tübingen: Niemeyer.
- Song, J. J. (2001).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London: Longman.
- Song, J. J. (2011).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ong, K.-A. (2009). Evidentials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7(2), 1-20.
- Stolt, B. (1979). Ein Diskussionsbeitrag zu *mal, eben, auch, doch* aus kontrastiver Sicht. In H. Weydt (Ed.), *Die Partikeln der deutschen Sprache* (pp. 479-487). Berlin: Walter de Gruyter.
- The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1984). Oxford: Clarendon Press
- Weydt, H. (ed.) (1979). *Die Partikeln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Walter de Gruyter.
- Zandvoort, R. W. (1966).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London: Longman.

3. 인터넷 사이트

<http://bibel-online.net>
http://de.wikipedia.org/wiki/Neue_evangelistische_%C3%9Cbersetzung
<http://ko.wikipedia.org>
<http://www.bible4u.pe.kr/>
<http://www.biblegateway.com/>
<http://www.bskorea.or.kr>

송경안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독문과
전화: 062-530-3176
이메일: kasong@chonnam.ac.kr

Received on December 31, 2013

Revised version received on February 28, 2014

Accepted on March 7, 2014